

“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타인의 고통에 영향을 받도록 합시다.
치유의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합시다.

- 교황 프란치스코 -

”



골롬반 선교

2023년 겨울호 vol.126

antiquena

골롬반 선교

2023년 겨울호 vol.126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마음을 여는 글 03 이문화 생활 참여는 복음에 대한 응답

안재선 제이슨

시노달리타스 06 먼 황금의 땅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커트 시온 팔라

16 시노달리타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임영준 에이몬

한국 선교 90주년 09 한국 골롬반 선구자들! 오기백 다니엘

말씀 산책 12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강요한

평신도선교사 14 로덴을 기억해 주세요

안나 플로레스

대만 이야기 18 아라이 씽뿌! 석진욱 안토니오

생태적 회심 20 지구를 위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에이미 에체베리아

신학원 22 오순도순 산다는 것 노승준 요한바오로

성소 이야기 24 하느님 사랑의 열매 요완네 나이오

축하합니다 26 사제서품 희년을 맞은 골롬반회 사제들

편집실

후원회 28 골롬반 소식 30



표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루카 10,29-37)를 묵상하며 안재선 제이슨 신부가 그렸다.
오늘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지 묻고 있는 그림이다.

〈이웃〉 The Neighbor, 캔버스에 아크릴 73x54cm,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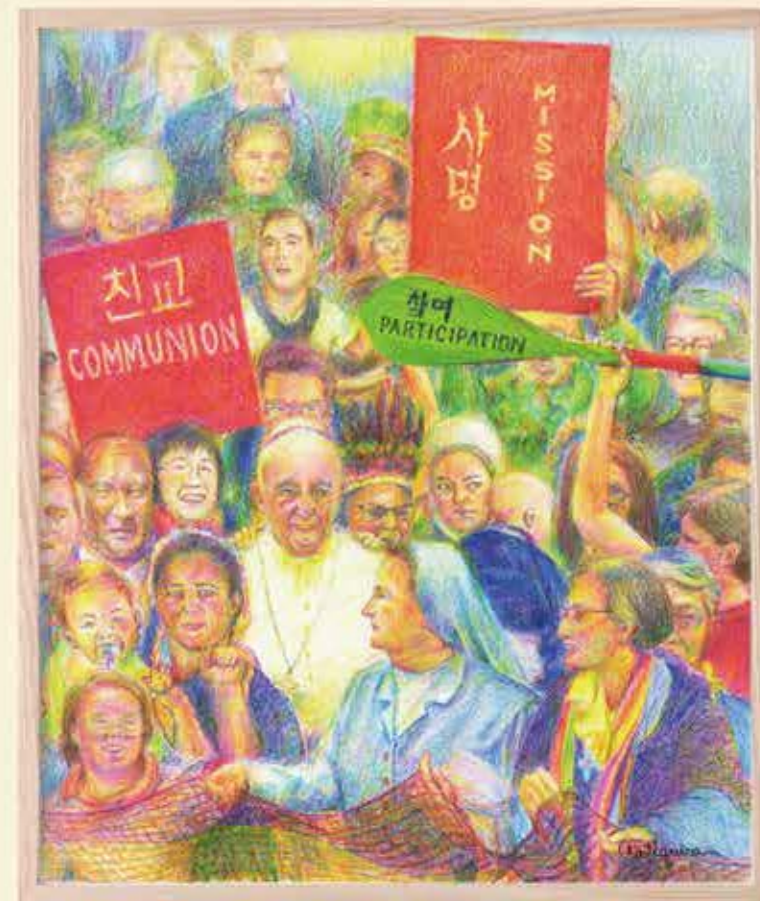
마음을 여는 글

이문화 생활 참여는 복음에 대한 응답

안재선 제이슨 신부

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노달리타스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라는 잡지의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좀 더 깊은 성찰이 담긴 편집 예술로써 이 그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 속 각각의 이미지는 상상이나 추상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그린 것으로 2017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아마존 주교 시노드의 한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평신도, 수녀, 주교, 아마존 원주민 등 시노드 참가자들과 한데 어울려 나란히 걸으며 시노드를 시작하는 예식을 했는데, 이 행렬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출발해 성 베드로 광장을 지나 종탑 아래의 문을 통과해 시노드 회의장 안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진하는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노달리타스(하느님 백성과 함께 걷는 여정)”를 주제로 그린 제 작품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작년 『골롬반선교』 잡지 표지로 선보인 적 있는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으시리라 생



려와 우리에게 포함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가 어린이, 장애인, 병자,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변방의 사람들을 한가운데로 부르시어 목소리를 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또한, 이 그림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곧 이문화異文化 생활 (Intercultural living: 2023년 여름가을호 참조)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언어입니다. 서로 다른 문

화한 상징인 그물과 배 젓는 노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 비유로써 그물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행렬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 여정에 참여하는 것은 머릿속 상상의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그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노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종이 여러 나라를 사목 방문할 때 만났거나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장애인, 아픈 어린이와 어머니, 성소수자 등등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와 존재감이 작은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교종은 이들뿐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참여란 중심부에서 모인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중심부로 데



이야기와 독자 여러분께서 삶터에서 겪는 신앙 이야기가 교감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와 배경을 상호 주고받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삶인 이문화 생활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의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문화 생활의 다양성이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며, 다양한 언어(또는 목소리)로 말하고 다양한 피부색으로 구체화되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2023년 마지막 잡지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골롬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사제, 평신도, 신학생 등 골롬반 회원은 선교지에서 직면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문화 선교를 위해 각자의 고유성, 열정,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체험한 선교사들의 신앙



성 바오로가 말하였듯 이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으며,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갈라 3,28),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므로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입니다(1코린 10, 16-17). ✠



안재선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에서 2014년에 사제품을 받고 다음 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제주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현재 서울에서 미술사목을 하며 그림을 통한 선교를 하면서 이주민 사목도 하고 있다.

시노달리타스

먼 황금의 땅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커트 시온 팔라 신부

“와자우! 와자우 에!”(*신부님이라는 뜻의 카친족 말) 잠을 청하려고 이부자리를 펴는데 밖에서 한 청년이 크고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본당 청년 하나가 총에 맞아 시내 병원에 있다고 알려달려온 것입니다. 서둘러 필요한 걸 챙겨서 청년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길목을 지키는 군인과 경찰을 지나쳐야 했기에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총에 맞은 청년은 수술실에 누워있었고 수술을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

니다. 청년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제게 그를 위해 성유를 발라주고 기도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니 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성당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 또한 군인들이 청년을 데려갈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곧 환자를 다른 데로 이송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나 다들 돌아오는 길에서 검문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나라 청년들이 주도한 시위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올해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청년대회에 참가했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미얀마 가톨릭 청년들

전 세계 곳곳에서 침묵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쟁 때문에 영영 잃어버린 사람들, 동물, 하느님 피조물의 목소리입니다. 새 지저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폭탄 굉음, 총소리가 들립니다. 밝게 웃고 떠들고 노래하던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집을 잃은 슬픔에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잔인하고,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말에 무관심한 듯합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히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경청하고 돌보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심심찮게 무시되곤 합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종종 젊은이들에게 교회 건물 청소, 행사 준비 정도만 위임하고, 정작 의사 결정 과정에 그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치나 교구(미얀마 북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학생 행동 미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학생들과 가톨릭 사회교리를 공부합니다. 성찰과 행동에 관한 가톨릭노동청년회(JOC)의 고유한 양식인 관찰-판단-실천을 익히고, “생활 반성” 방법론을 생활화하면서 청년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젊은이들은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멀고 먼 황금의 땅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이들은 배움을 원합니다.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많은 젊은이가 교육 시스템에서 이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회복력을 키워 난관에 놓이더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청년 계발 프로그램” 등 교육 시스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청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으로 그들의 삶과 사명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세계주교시노드 편람을 보면 “시노드의 목적은 더 많은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도록 영감을 주고 희망을 꽃피우게 하며 신뢰를 발전시키며 상처를 감싸 매고 마치 옷감 짜듯이 새롭고 더 깊은 관계를 엮어 나가고 서로에게서 배워나가며 관계를 개선하고 깨우친 생각을 지니고 마음에 온기를 나누며 공동 사명을 수행할 우리 손에 힘을 다시 북돋워 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노달리타스 여정에서 젊은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도록,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한국 골롬반 선구자들!

오기백 다니엘 신부

최근에 우리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들의 모임에 이곳 청년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청년 필립보 나우 생 씨에게 이 지면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할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가톨릭학생회 YCS(Young Catholic Students)의 일원으로서 제15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21살 청년으로서 저는 아시아총회와 협의회에 참가하면서 소속감을 느꼈고 행복했습니다. 믿음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는 기회였으며 교회와 사회 양쪽에서 능동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북돋워 주었습니다.

대회에서 만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청년들과 연결되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감각을 키웠으며,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화를 오게 하는 삶"을 일구는 우리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걸으면서 교회와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YCS는 젊은 가톨릭 학생, 특히 미얀마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모임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배움을 얻고 의사소통함으로써 서로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YCS는 이 나라의 젊은 가톨릭 학생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이를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원칙에 따라 사랑, 연민, 받아들임이 널리 퍼진 조화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아시아의 가톨릭 청년으로서 저의 염원이자 희망입니다.

경청하는 교회를 만들려는 자신의 사명을 한결같이 강조해 온 프란치스코 교종의 말씀으로 끝마무리하면서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이 나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신앙은 귀 기울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심으로써 인간을 대화 상대로 삼으시고 당신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파수를 맞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경청하라고 요청하십니다."(2022년 홍보주일 담화)

쿠르트 시온 팔라 Kurt Zion Pala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출신이며, 2015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피지에서 첫 선교를 하였고, 이어 미얀마로 파견돼 북부 지역 미치나 교구에서 본당사목과 청년사목을 담당하면서 찬미반으로서 운동 등 하나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에 도착한 직후, 주교좌계산성당 성모당 앞에서(1933년 10월 29일), (앞줄 왼쪽부터) 나 토마스, 임 오웬, 안세화 주교, 손 파트리치오, 모 파트리치오, (뒷줄 왼쪽부터) 현 헨리, 서 예로니모, 매 제랄드, 지 벨라도, 간 토마스, 명 다니엘

1933 한국 진출

1933년 10월 29일, 첫 번째로 한국에 파견된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도착했다. 대구 교구장 안세화 주교(파리외방전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은 전라남도에서 일할 선교사 파견을 골롬반회에 제안하였고, 이에 즉각 응답하여 본회는 첫 팀으로 10명을 한국에 보냈다. 8명은 아일랜드 출신, 1명은 미국, 1명은 호주 사람이었다. 아홉 명은 함께 아일랜드에서 공부한 후 1932년에 사제품을 받았고, 한 명은 골롬반회 창립 후 첫 선교사 그룹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12년간 활동한 임 오웬(맥폴린) 신부다. 상하이에서 합류한 이들은 대구에 도착해 안세화 주교

의 환영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대구 성 유스티노 소신 학교에서 생활하며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웠다.

1934년 부활절에 이들은 전라남도에서 사목하던 6명의 한국인 신부들의 보좌로 발령받았다. 임 오웬(Owen McPolin), 모 파트리치오(Patrick Monaghan) 신부는 목포 산정동, 현 헨리(Harold Henry) 신부는 노안, 매 제랄드(Gerard Marinan) 신부는 광주 북동, 지 벨라도(Berard Geraghty) 신부와 간 토마스(Tomas Neligan) 신부는 순천 저전동 그리고 손 파트리치오(Patrick Dawson) 신부와 서 예로니모(Jerome



광주 북동성당 신축 때 모 파트리치오 신부

1934 전라남도 선교 시작



명 다니엘 신부는 광주대교구 담양 천주교 묘원에 안장되었다.



임 오웬 목사님



서 에로니모 신부



가택 연금 당시



나 토마스 신부(오른쪽), 손 파트리치오 신부가 제주에서 활동할 때



독립유공자 나 토마스, 손 파트리치오, 서 아오스딩 신부의 건국훈장



◀나주성당 내 현 헨리 대주교 기념관



레지오 교본 번역 작업 때 현 헨리 대주교와 한공렬 대주교



장성 본당 교우들과 지 벨라도 신부



◀춘천교구 임당동성당 100주년 미사에서 김주영 주교가 간 토마스 신부 석상을 축복하고 있다.



간 토마스 신부



매 제랄드 신부(앞줄 가운데) 한국으로 파견된 후배 선교사들과 함께

1939 강원도 선교 시작

Sweeney) 신부는 제주 중앙, 나 토마스(Thomas D. Ryan) 신부와 명 다니엘(Daniel Mc-Menamin) 신부는 서귀포 흥노에 배치되었다. 1937년 11월에 명 다니엘 신부는 폐결핵으로 28세에 별세하여 한국에서 죽고 묻힌 첫 번째 골롬반 선교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는 선교사들의 삶과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 경찰 감시하에 이동할 때마다 당국에 보고해야 했으며, 신자들은 외국인 선교 사제들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조사를 받았다. 1941년에 일본이 세계대전에 가세할 때 중립국이었던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들은 가택연금을 당했고, 적성국으로 분류된 미국과 호주 출신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한편, 제주에서 활동하던 나 토마스 신부, 손 파트리치오, 서 아오스딩 신부(서 에로니모 신부의 동생, 1935년 한국 파견)가 1942년, 항일운동으로 기소되어 형을 받고 투옥되었다. 손 파트리치오 신부는 광복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1999년 8월 15일, 이 세 명의 선교사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항일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가톨릭 사제들이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나 토마스 신부는 제주로 피난온 서울 신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자기 본당에 머물게 했다. 그는 대부분 삶을 서귀포에서 보냈고, 1971년에 64세로 선종하여 제주에 묻혔다. 손 파트리치오 신부는 1970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뒤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임 오웬 신부는 1937년 광주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고 1939년에 선교사들을 강원도에 파견했다. 그는 춘천교구의 최초 교구장(당시 지목구장)으로도 임명(겸임)되어 교구 설립의 초석을 다졌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가택연금으로 지친 상태에서 광복 후 본국에 휴가를 갔다가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고, 미국과 아일랜드에 가서 골롬반 신학생 양성에 전념했다.



오기백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75년,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왔다. 광주대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1980년부터 인천교구 부천 노동사목과 서울대교구 봉천9동 도시빈민사목 현장에서 활동하였다. 한국지부장, 신학원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지부 역사실을 담당하면서 선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올해의 이민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진은 간 토마스 신부 묘소(강릉 갈바리의원 내 위치)를 방문했을 때

1949 아시아 지부에서 독립, 한국지부 초대 지부장 지 벨라도 신부 임명

전남 나주성당의 초대 주임이었던 현 헨리 신부는 일본의 적국인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1942년에 추방되었다. 1947년 복귀하면서 광주 교구 총대리로 임명되었고, 훗날 광주대교구의 첫 대주교가 되었다. 그는 수많은 수도화를 광주대교구에서 일하도록 초청했으며, 한국에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하였고, 한국의 두 번째 신학교를 광주에 세웠다. 1971년 교구장에서 사임한 후 같은 해 제주교구의 최초 주교가 되었으며 1976년에 66세로 선종, 제주 땅에 묻혔다.

지 벨라도 신부는 전남 장성의 최초 신부였으며, 나중에 강원도에 가서 횡성과 홍천에서도 사목하였다. 1949년에는 골롬반회 한국지부 초대 지부장에 임명되어 지금의 한국지부 본부 자리를 매입하였다. 또, 몇 개 본당을 서울에 지었다. 돈암동 본당(성북구 소재)을 제일 먼저 세웠고, 왕십리와 장위동에서는 본당을 설립하고 초대 주임으로 선교했다. 그는 1974년에 64세로 아일랜드에서 갑자기 별세하였다.

간 토마스 신부는 평생을 강원도에서 활동하였다. 휴전 직후인 1954년에 강릉 임당동성당을 새로 짓는데 매진하다 과로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45세에 세상을 떠나 성당 길 건너 갈바리의원 구내 땅

1953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1955 서울에 본당 설립 시작

1993 매 제랄드 신부 선종

에 묻혔다. 2020년, 임당동성당은 10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당 마당에 간 토마스 신부 석상을 세우고 축복하는 예식을 거행했다. 모 파트리치오 신부는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홍천 본당 사제관에 연금당했을 때를 제외하고 광주 교구에서 평생을 보냈다. 목포 산정동 주임 시절 병환으로 1951년 7월 치료차 미국에 갔으나, 그해 11월에 41세로 눈을 감았다.

매 제랄드 신부는 광주 북동 본당, 강원도 원동, 죽림동 본당에서 일했지만 1941년 초 건강 상태가 나빠져 미국으로 갔다. 이후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활동했다. 1942년에는 서 에로니모 신부가 고국 호주로 송환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일본으로 파견되어 평생을 그곳에서 선교했다.

이 땅에 맨 처음 파견된 골롬반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면 “삶이란 날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나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로 측정된다.”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젊은 나이에 선종하여 선교 생활이 길지 않았지만, 20세기 초반, 한국의 고통을 함께 겪고 나누며 그 시기에 한국 교회의 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들이 하느님과 함께 평안히 쉬기를 기원한다. ✠

말씀 산책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강요한 신부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말씀은 바오로 사도의 편지인 필리피서 2장 6-11절입니다. 그분의 글은 주로 하느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는 하느님의 모습과 완전히 대립한다는 점에서 반문화적이며 혁명적으로 보입니다. 하느님의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며, 하느님의 생각은 또한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땅 위로 높이 떠 있듯이, 하느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것을 초월합니다.

강요한 John Hogan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62년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가을 한국으로 왔다. 광주대교구 진도·해남·흑산도·강진 등 주로 섬과 농어촌 지역 본당에서 사목했다.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1970년부터 도시로 와서 서울대교구 장위동·구의동, 인천교구 송림4동 본당에서 일했다. 1985년에는 미국으로 파견돼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교포사목을 15년 동안 했다. 지금은 아일랜드 골롬반 본부에서 행복한 은퇴살이를 하고 있다.

성 바오로는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묘사하면서 또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후미진 곳에서 성장하셨고 종살이를 했으며 마침내 이방인과 차별받는 이들,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상 죽음을 택하셨다고도 설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면서 신이신 예수님은 하느님과 동등함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의해 예견되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 예표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약속되고 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이셨는데도 이런 삶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3년 동안 선한 일을 행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이가 듣도록, 걷지 못하는 이가 걷도록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심으로써 희망을 주시고 그들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 환경과 삶의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약함, 상처, 두려움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즉, 당신께서는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함께하셨기에 우리 삶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인간적인 형상으로서 당신 스스로 우리 개개인 모두를 초대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상처를 낫게 해 주시고, 도움과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며, 생명의 물을 부어 줄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가 이처럼

강 렬 하고
확신에 찬 목소
리로 말한 것처럼 예
수님은 우리의 빛과 희망이요, 반석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신앙은 희망과 빛을 주지만, 또한 도전도 받게 합니다. 세상의 관례나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고 그분의 증인이자 실천하는 이가 되라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어 종의 신분을 취하셨으며 종랑을 거슬러 헤엄치셨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맞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죄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과거의 산산이 깨진 조각들을 주워서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

평신도선교사

로텐을 기억해 주세요

안나 플로레스 선교사

몇 년 전 가정방문을 하면서 남자아기(로텐)를 돌보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로텐은 그 집 자녀는 아니고, 사촌들과 함께 이모가 키우고 있었습니

다. 왜 부모가 키우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저에게 이모는 아이의 엄마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로텐은 뇌성마비로 태어났고 소두증, 뇌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속될 당시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로텐과 그의 형제들은 아동 일시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아이들을 부탁하는 엄마의 연락을 받고, 이모는 그 길로 먼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너무 야위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조카들을 보고 이모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가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내 로텐은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검진을 한 의사는 아이에게 3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몇 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는 아이의 호흡을 위해 기도 삼관을 권유하였으나 이모는 아이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차마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로텐은 잘 버텨내어 퇴원하게 되었지만, 아주 비싼 우유를 처방받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네 사정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수

안나 플로레스 Flores Huamani Ana Belma | 페루 출신이며 공립학교에서 교사를 하다 선교 성소에 응답해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가 되었다. 2007년 필리핀으로 파견돼 남부 카가얀 데 오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돌보며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모 품에 안겨 있는 로텐



지난가을, 하느님 품으로 떠난 로텐의 무덤



공부방 어린이들과 필자

입원인 이모부가 건설 현장에서 버는 돈은 너무나 적어서 비싼 우유값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남미에서 온 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우유를 구해주고 그 가족을 위한 식료품도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로텐의 엄마는 잠시 출소했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다시 들어가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습니다.

로텐은 자주 아팠지만 이겨내곤 했습니다. 7월에는 이곳 공립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몸에 아주 많은 바늘 자국이 있었는데,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혈관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작고 여린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로텐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또 한 번 고비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0월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폐렴까지 왔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혈관을 찾을 수도, 더는 입으로 우유를 마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혈청 공급과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아이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로텐은 씩

을 수 있는 고체로 된 맛있는 밥 한번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다섯 살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몹시 슬퍼했지만, 아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했던 이모의 슬픔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어머니는 다시는 아들을 만날 수 없으며, 사진 몇 장과 자기 품에 안겼던 그 짧은 순간만으로 아들을 추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 많은 어머니가 이처럼 가난으로 인해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지켜봐야만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데다 구한다 한들 아이에게 밥을 해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 많습니다. 성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저는 이러한 가정을 방문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은인들의 도움과 후원 덕분에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어 더는 바랄 것 없이 찬만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와 친구들과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임영준 에이몬 신부

많은 사람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시노드 프로세스에 대한 제 기대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시노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최신 단계는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친교-참여-사명”을 주제로 올해 10월 로마에서 열린 세계주교시노드입니다. 2024년 10월에는 두 번째 세계주교시노드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펴봐도 이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를 탐구하고 결정할 때 성급하게 결정 내리는 것보다 천천히 신중히 하는 게 낫습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에너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꾀할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코 확신하지 못하며 많은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늘 안전하게 움직이면서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 또한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또, 앞으로 진행될 시노드와 교황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지만, 이 과정이 너무 느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결국 긴 박감과 도전 의식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100% 정확할 수 없으며 항상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새롭고도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싶다면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말과 행동의 일치 중요합니다. 제 걱정은 시노드 과정이 끝난 후 말만 남고 행동은 하지 않게 될 위험성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진공 상태가 아닌 사회적 맥락 위에서 발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역사와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하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또 다른 복잡한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천주교가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국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맥락을 살펴보려면 한국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고, 동시에 더 광범위하고 글로벌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도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문단으로 교회의 맥락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점은 지구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입니다. 빈곤, 폭력과 군국주의도 큰 문제입니다. 높은 자살률, 빈부격차, 노인 빈곤, 성차별 등등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교회 내에도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시급하게는 비밀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성직자 중심주의와 아동 성폭력 문제를 깊이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더해,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 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노드 프로세스를 통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기대일 것입니

임영준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1993년에 사제품을 받고 그해 한국에 왔다. 2007년에 런던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골롬반회의 우선순위 과제인 '종교 간 대화'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지부장을 역임했다.



다. 그래서 시노드의 역할과 결과를 과대평가하면 우리는 크게 실망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를 자기 노력만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연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노드와 시노달리타스를 모든 질병의 만능 치료제로 기대하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대화 여정의 시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더불어 스스로 물어봐야 할 중요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더 포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



대만 이야기

아라이 썬뿌!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

“아라이”는 대만 원주민 가운데 가장 큰 부족인 아미족의 언어로 “감사합니다”이고, “썬뿌”는 사제를 뜻합니다. 우리 본당 신자 대다수가 아미족이라서 주일 첫 미사는 아미족 언어로, 두 번째는 중국어로 봉헌합니다. 미사 후 인사를 나눌 때 신자들은 중국어로 “씨에씨에 셴푸(신부님, 감사합니다)” 또는 원주민 말로 “아라이 썬뿌”라고도 합니다. 그때 제가 “아라이 하니타 코 와마!(하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면 신자들은 “하느님과 신부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같이 크게 웃으시곤 합니다.

원주민 본당을 맡으면서 처음 든 걱정은 언어였습니다. 원주민들도 중국어를 공용으로 쓰므로 제가 원주민 말을 따로 배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미사에서

사제가 하는 부분은 중국어로, 신자들의 응답 부분과 독서, 성가는 아미족어로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생각하고 부임 후 첫 미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사가 영 어색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부임하고 두어 달 정도 지났는데도 그 느낌이 계속 이어져서 아미족 말로 미사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복음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전례 봉사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발음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날 복음이 길지는 않았지만, 원주민 말로 된 복음은 더 길었고 처음이라 무척 긴장했습니다. 복음 시작 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까지는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제



10월, 필자가 본당 교우들과 함께 한국 성지순례를 왔다가 한국지부를 방문하여 미사를 드리고 전통춤 공연을 펼쳤다.

가 자기들 말로 복음을 봉독하자 신자들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라는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노래로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론은 중국어로 했지만 신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론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신자들과 인사를 할 때, 예전에는 짧게 인사만 하고 얼른 나가시던 분들도 “아라이 썬뿌, 니 현뽕(정말 대단하세요)” 하며 연신 엄지를 치켜 보여주어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복음을 원주민 말로 읽으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 미사 시작부터 해서 원주민 말로 하는 부분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룩하시도다” 전까지만 하는데 조만간 미사 전체를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 주일 첫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일에는 원주민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고 그들 언어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을 운영하는데, 제가 두 번째 미사를 마치고 그 모임에 찾아가면, 맥주 한잔을 제게 건네면서 “신부님, 오늘 복음 읽을 때 발음 너무 좋았어요.” 하는 분도 있고, “그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해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분이 “형제님보다 신부님이 더 잘 읽으시니까, 형제님이나 연습 더 하세요!”라고 말해서 함께 크게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에게 다른 언어로 미사를 봉헌하는

석진욱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대구 출신이며, 2017년 사제품을 받고 그해 대만으로 파견되었다. 현재 원주민 지역인 신주교구 성 미카엘 본당 주임으로 사목하면서 이주민·장애인 사목을 겸하고 있다.



본당 신자들과 즐거운 한때(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에서 강론할 때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에게도 중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때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제가 그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제 작은 노력으로 그분들도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 주시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선출 직후 첫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 주교와 (하느님) 백성으로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사랑으로 온 교회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형제애와 사랑과 신뢰의 여정인 것입니다.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첫인사 안에 하느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여정”은 “참여”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도 미약한 힘이지만 이곳 분들의 문화에 ‘참여’하고자 언어를 배움으로써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교회로 돌아온 분들과 새로운 ‘만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곳 사람들과 함께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갑니다.

올해는 골롬반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90주년이 된 해입니다. 오랜 시간 골롬반 선교사들이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 선교사로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형제애와 사랑과 신뢰의 여정을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아라이 하니타 코 와마!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생태적 회심

지구를 위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에이미 에체베리아

작년 12월 대림 시기에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환경 보호 특히 생물다양성, 지역 사회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옹호 활동 등을 해왔던 골롬반회가 그동안 힘써 온 노력의 열매를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여러 해 동안 협상을 거쳐 한자리에 모였고, 대멸종을 막고자 생물 다양성 보전 대책 등 지구와 인류의 건강을 보장하는 많은 목표에 합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작년 회의



는 사상 처음으로, 신앙에 기반한 조직(FBOs, Faith Based Organization)을 회의 참가자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다종교 연합(www.biodiversity.faith)”으로 알려진 COP15 종교 연합의 활동이 이룬 성과입니다. 지상의 피조물을 공동으로 보살피기 위해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맺은 국제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

자인 골롬반회로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아기 오심을 고대하던 밤처럼 길고도 추

운 몬트리올 겨울밤에 골롬반회 참가자들과 다른 종교에서 온 참가자들은 당사국들이 합의를 꼭 이루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밤, 수백 명의 시민사회 참가자들이 기다리는 대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정의, 인권, 환경 보호에 대한 약속이 국제 협약에 포함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를 찾던 성모님과 성 요셉의 마음을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지구 환경과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이 국가들이 자기들의 문을 열어줄까?’ 늦은 밤까지도 계속되는 기다림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도 현장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바깥만큼이나 어둡고 찬 공기가 건물 내부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의장단이 회의장에 입장했고 뒤이어 각국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수천 명이 있었는데도 속삭임까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마침내 통과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관리하기 등 여러 목표에 196개 나라가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싸안고 기뻐하며 눈물 어린 함성을 질렀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성탄 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쁨에 차 있던 언덕 위 목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그랬듯이 COP15에서 결정된 기쁜 소식을 지구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이미 에체베리아 Amy Woolam Echeverria | 미국 출신이며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본회 중앙 JPIC 코디네이터로서 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산하 “생태 태스크 포스” 팀의 공동 코디네이터로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면서 도전, 실패, 절망, 회의, 마침내는 십자가 위 죽음까지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COP15에서 체결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합의를 실현하는 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최근 반포한 사도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 고향인 지구와 화해하고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순례에 참여하기를 청합니다. 그 헌신은 우



COP15 회의에서 만난 한국 정부 참석자들과 함께

리 각 사람의 존엄과 최고의 가치와 상관이 있기 때문”(69항)이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지구를 돌볼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는데, 하나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개인적이고 가족적이며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때 이른 성탄을 미리 체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여러 신앙 공동체는 연대하여 각국 정부가 국익을 넘어 세계를 위해 더 높은 이상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롬반회는 지구를 위한 정의, 평화, 사랑을 희망 속에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시노달리타스의 방식 즉, 피조물 전체를 돌보며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신학원

오순도순 산다는 것

노승준 요한바오로 신학생

골롬반회 국제 신학원의 원장은 아일랜드 사람, 부원장은 필리핀 사람이며, 한국(3명), 필리핀(4명), 미얀마(2명), 피지(1명), 키리바시(2명)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신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또 전례 속에서 각자의 문화와 다름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저는 얼마 전 식사 시간에 문득 든 생각을 학생들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영어로 말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사는 것을 생

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 그러자 옆에 앉은 신학생이 말했습니다. “나도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보진 적이 없어.”

골롬반회는 ‘문화 간 상호작용’(intercultural living)을 강조합니다. 여러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다름을 아주 쉽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문화라도 각자 살아온 환경(가족, 친구 등)과 세대가 다르기에 문화 간 상호작용은 골롬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고 제대로 배워보지 않았던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종 실수 혹은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 역시 1년 넘게 이러한 삶을 배우고 살고 있는데도 의

식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에게 실수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서로의 실수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각자의 고유성과 문화를 알게 됩니다. 문화 간 상호작용의 핵심은 다름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장인 국제 신학원의 삶에서 ‘참여’는 서로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덕목으로 작용합니다.

필리핀 지부는 각 나라의 독립기념일이나 특별한 명절에 자기 나라 문화와 풍습 등을 소개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추석에는 한국인 신학생들과 평신도선교사가 직접 요리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차례 지내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 피지 독립기념일에는 피지의 역사와 문화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끝 무렵에 피지 신학생이 모든 참석자에게 일어나서 춤추자고 초대했습니다. 저는 춤추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극구 사양하면서 춤추자는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예수님의 초대라고 경험한 저는 이날 씩스럽지만 기쁘게 일어나 함께 기차놀이를 하고 춤추면서 어울려 놀았습니다. 씩스러움, 함께 춤춘다는 즐거움,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 등을 피지의 문화를 통해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않고 불평불만만 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참여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참여는 제가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게끔 장을 열어줍니다. 참여는 제 마음을 열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기회를 줍니다. 참여는 매일 서로가 서로에게 ‘다름’을 경험하는 저희가 스스로와 서로를 더 알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맨 왼쪽이 필자)

고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름 속에서 자신을 또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달라서 말다툼하기도,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각자의 다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역동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이 역동 속에 있는 개인의 상처 혹은 결핍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동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온몸과 마음과 정신을 이 역동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예수님이시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역동 속으로 저를 투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로써 저는 저 스스로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성경에 “가거라”라는 하느님의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향을 떠나 하느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파라오가 두려워 여러 번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보여준 모습은 각자 달랐지만 결국 하느님의 초대에 따랐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하느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각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창세 3, 9) 하시며 저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형제들과 오순도순 지내면서 날마다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

노승준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로올라 신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마닐라 국제 신학원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신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다.

성소 이야기

하느님 사랑의 열매

요완네 나이오 부제

부제로 서품을 받아 참으로 기쁩니다. 이 식별의 여정에 저를 초대하시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느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저를 믿어주셨고, 절대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여정 내내 당신의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교 사제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확고한 지지를 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또한, 이 여정을 출발할 때부터 동반하고 인내로써 기다려 준 골롬반 가족들, 후원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열일곱 살 때 골롬반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을 텐데 당시 저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사제 성소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후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농장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농장에

서 일했고 가족, 특히 어머니의 도움으로 신앙을 충실히 키워왔습니다. 본당 일에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삶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내가 하느님의 일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골롬반회를 다시 찾아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롬반회 평신도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촌 누나(故 세라피나 라나디 부대)가 고향 휴가를 와서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더러 프랭크 호어 신부님이 진행하는 골롬반회 평신도 선교사 성소 모임인 “와서 보아라”(컴앤씨 Come and See)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한번 거절당한 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누나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2달리(피지 달러)를 제게 쥐여주면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집에 올 때는 프랭크 호어 신부님이 돌아올 교통비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태평양 지역 신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여 만에 학업을 하하니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급생들은 잘 준비되어 입학한 데다 저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맡기며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2016년에는 피지를 떠나 마닐라에 있는 골롬반회 국제 신학원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제 고향 피지와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국적의 동료 신학생들과 처음 만나 함께 사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새도 없이 곧바로 로올라 신학교에 진학해 신학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지식뿐 아니라 하느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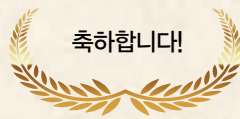
(왼쪽부터) 함께 부제품을 받은 미얀마 출신 아웅 프란시스 부제, 부총장 브라이언 베일 신부, 필자

대한 내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외 선교를 페루로 발령받고 2021년까지 선교 실습을 마친 뒤 필리핀으로 돌아와 남은 신학 공부를 마쳤고, 올해 5월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고,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독특한 특성 중 일부를 알아보고 이를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자신의 문화에 기반을 두지만 다른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마음을 열도록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

요완네 나이오 Iowane Naio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피지 출신이며 2014년에 입회하여 2023년 9월 필리핀에서 부제품을 받았다. 내년에 사제품을 받을 예정이다.



사제서품 희년을 맞은 골롬반회 사제들

편집실



경 베드로 신부
Peter Kelly, 호주

원주교구 정선·문막·삼척 사직·용소막에서 본당사목, 원주교구장 비서와 고등학교 교사를 했다. 기술 직업학교를 설립하였고, 넘마주이를 하는 아동을 위한 자립 주택을 짓기도 하였다. 1985년 호주에 가서 시드니 한인 공동체 사목을 하였다. 중국에서 일한 후 2005년부터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 가비노 신부
Kevin Fleming, 아일랜드



춘천교구 죽림동·운교동·양덕원, 원주교구 단구동·영월, 서울대교구 사당동, 의정부교구 미금동(설립)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시장사목(노량진 수산시장), 병원사목, ME 지도 등을 하며 특수사목 초창기에 기반을 다졌다. 한국지부 부지 부장을 역임하면서 후원회 시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3년, 아일랜드에 돌아가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은퇴 후 달간 파크에서 지내고 있다.



나경식 신부
Gerard Neylon, 아일랜드

원주교구 황성, 광주대교구 흑산도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이후 대만으로 파견돼 신주교구에서 본당 사목과 장애인사목을 하면서 열악했던 장애인 인권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오래 일하였고, 지금은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아곱 신부
James Nolan, 아일랜드



광주대교구에서는 계림동·흑산도·노안·목포 산정동·대성동·광주 임곡동, 원주교구 사북, 제주교구 서귀포, 인천교구 가정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한국지부에 후원회가 생기면서 전주와 광주, 제주 지역을 다니며 선교 홍보를 하였다. 2001년 칠레에 가서 한인 교포사목을 하고 2007년 돌아와 병원사목, 이주민사목 등 사회사목을 하였다. 현재는 제주 골롬반 사제관에서 지내며 제주 후원회원을 동반하고 있다. 지난 골롬반 축일에 봉헌한 회경축 감사미사에서 그는 언제나 그렇듯 능숙한 전라도 사투리로 인사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동기 신부님들 특히 양노엘, 설요한, 오록 신부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협조자들께서 60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40년 더 계속해서 도와주십시오.”



주다두 신부
Jude Asok Genovia, 필리핀



1998년 사제품을 받고 다음 해에 와서 광주대교구 목포 대성동, 서울대교구 대방동·역삼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또한, 6년 넘게 한국지부 신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신학생 양성을 맡았다. 최근까지 이주민사목, JPIC 활동을 하다가 올해 5월 필리핀으로 발령을 받고 그곳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다.



마 고르벨리오 신부
Neil Magill, 아일랜드

광주대교구 목포 산정동·흑산도, 춘천교구 운교동에서 사목하였다. 대만에서 노동자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가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하였다. 이후 아일랜드에서 정의·평화 활동을 하였고, 미안마로 가서 대학을 설립해 청년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주고 잠재력을 키우도록 힘쓰고 있다.



갈 굴리엘모 신부
William Gallagher, 아일랜드



탁승현 벨라도 신부
Bernard Francis Dagge, 호주

1973년 5월 호주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여름, 한국에 도착해 제주교구 모슬포, 춘천교구 흥천 양덕원, 광주대교구 영광, 수원교구 신장·금곡, 의정부교구 구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1998년부터 20년 가까이 제주, 경남, 경북 지역 후원회를 담당하며 많은 이를 골롬반 선교로 초대하였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면서 후원회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살 전체에서 제가 결정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항상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신부가 된 것,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부족한 면까지도 주님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데 쓰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모태에서 저를 빚기 전에 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 주시고 늘 저와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에 와서 평생 광주대교구에서 일했다. “공소 많이 세우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었어요. 주교님이 거기 가서 공소 지으라고 하셨어요. 함평 보좌 때 안 토마스 신부(사진 오른쪽)님처럼 공소 많이 세우고 싶어서 계속 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이 만나 이야기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다녔어요. 힘이 되는 대로 온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소를 지으니 사람들이 모였고, 오늘날 본당이 되었어요.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94세, 한국지부 최고령이다. 갈 굴리엘모 신부는 은퇴 후 공소사목을 했던 장성 농촌 마을에서 꿀벌

을 키우며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고, 기도으로써 선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70주년을 맞은 소감을 묻자 갈 신부가 성경을 펼쳤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마르 1,38). 그런 다음 하느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다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하느님 좋은 분, 선교사들과 신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충분히 주십시오. 아멘.”

문 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미사 봉헌

후원회 월례미사

23년 12월 - 24년 3월

	12월	1월	2월	3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1일	5일	2일	1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돈암동)	22일	26일	23일	29일	돈암동 본부	032-529-9621
인천	12일	9일	13일	12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3일	-	14일	13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8일	12일	9일	8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2일	26일	23일	22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	23일	20일	19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	24일	21일	20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	25일	22일	21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	26일	23일	22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4일	-	-	14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	17일	21일	20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16일	-	19일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	20일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광주, 목포, 순천, 전주: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3월 미사는 성주간으로 한 주 앞당겨집니다.
- 원주후원회: 1월 미사는 없습니다.
- 제주후원회: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온라인 신청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 소식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회는 10월 18~23일 제주 성이시돌피정센터에서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담당 오기백 신부)을 진행했습니다.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교 경험을 나누고 귀국 후 한국 사회 재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홉 번째를 맞은 올해는 12명이 참가해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온 선교 생활을 돌아보고, 새롭게 만난 하느님에 대해 나누며 치유와 성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년 만에 열린 엠마우스 예술제



10월 마지막 밤, 천노엘 신부가 활동하는 엠마우스 공동체가 “엠마우스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산타로 분장한 공연팀, 어린이들의 난타와 드럼 연주, K-POP 댄스, 사물놀이, 악기 연주, 연극 등 발달장애인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격년으로 열렸으나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막이 오른 만큼 더 열정적으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천노엘 신부는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와 공연자들과 손을 잡고 합창하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홍천성당 위령의 날 미사, 길 헨리 신부 묘소 방문

위령성월을 맞아 11월 4일, 춘천교구 홍천성당 공동체가 성당 묘역에서 봉헌한 위령미사에 골롬반회가 함께하였습니다. 홍천성당은 분회 사제 21명이 1939년부터 72년까지 사목한 곳으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맺어진 본당입니다. 1945년 5월 사제관에 골롬반회 신부 16명이 일제에 의해 강제 구금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길 헨리 신부가 간단한 치료 약조차 받지 못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선종했습니다. 미사를 마친 뒤, 길 헨리 신부 묘소로 이동해 우리의 지향을 알려드리며 고인에게 전구를 청하였습니다.



골롬반 소식

도 미카엘(Michael Dodd) 신부 선종



도 미카엘 신부가 11월 5일(현지 시각), 아일랜드 골롬반 요양원에서 선종했습니다. 향년 86세. 광주대교구 진도·경동·광주 월산동·목포 산정동, 서울대교구 상계동·공덕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70년대에는 서울대교구 북부 JOC를 맡아 을지로5가 “이향노동자집”에서 활동했습니다. 1980년 한국지부장에 임명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부를 잘 이끌어 갔으며, 이후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신학생 양성과 정의·평화 활동을 했습니다. 병석에 눕기 직전까지 SNS에서 한국 소식을 챙겨보고 기도를 보내주어 늘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충실했던 고인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1937년 1월 25일 아일랜드 출생
1954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회
1961년 12월 21일 사제서품
1962년 11월 한국 도착
2023년 11월 5일 아일랜드에서 선종
(성 골롬반 묘원 안장)

평신도선교사 소식

김정웅 요한 보스코·이지영 크리스티나 평신도선교사가 10월, 한국지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들은 2007년에 대만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면서 동료에서 부부로 연을 맺고 그곳에서 18년 동안 장애인과 HIV 감염자들을 동반했습니다.

골롬반 단기선교체험 대만에서 진행

“선교를 위한 초대(SIM Society Invitation to Mission)”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골롬반 단기선교체험>을 9월 17일~23일 대만에서 진행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남녀 청년 4명이 참가 신청을 해 대만 곳곳 골롬반회가 선교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선교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대만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다수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년 1월에는 필리핀으로 선교 체험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골롬반회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해 소명을 발견하는 여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노혜인 선교사



2023년 지부 총회 개최

10월 10일~12일 서울 본부에서 지부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광주, 제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제, 평신도선교사들과 총본부(홍콩)에서 부총장 브라이언 베일 신부와 제2참사 강승원 요셉 신부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내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세계 총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성령님께 식별의 은총을 청하며, 선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서 이룰려 하시는 바에 응답하기 위해 깊이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성 골롬반의 날, 서품 희년 감사 미사 봉헌

11월 20일, 서울 본부에서 성 골롬반 축일 미사를, 서품 기념해를 보내는 세 사제(갈 굴리엘모 신부 70주년, 노 야곱 신부 60주년, 탁 벨라도 신부 50주년을 위한 감사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선교지였던 전남 장성에 거주하는 갈 굴리엘모 신부는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축복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경축과 금경축을 맞은 두 사제는 강론에서 선교 여정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동반해 주었던 한국의 신자와 사제들과 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서울대교구 구 구요비 욕 주교가 함께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왼쪽부터) 구요비 주교, 노 야곱 신부, 탁 벨라도 신부, 서경희 신부(한국지부장)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골롬반회 선교사들이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안재선 제이슨 신부(필리핀/한국),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한국/대만), 지광규 대철베드로 신부(한국/필리핀), 정의균 가롤로 신부(한국/피지), 권세오 곤잘로 신부(칠레/한국), 류선중 안드레아 신부(한국/대만) *(출신 나라/현재 선교하는 나라)

해외선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골롬반회원이 되어 선교사제의 길을 걷고 싶은 청년,
평신도선교사로서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고 싶은 젊은 남녀,
일정 기간 골롬반회를 통해 해외에서 선교하기를 희망하는
교구와 수도회 소속 사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더 잘 듣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골롬반의 문을 노크해 주세요.
함께 식별의 여정을 걸으며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찾아갑시다!

문의 gonzalo_borquezd@hot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